

장애인들을 위한 “自活의 집”—기원전자통신



현대전자에서도 우리 제품을 최고로 알아준다고 자랑했다.

이 회사는 장애인들의 헌신에 힘입어 설립된지 3년도 채 안된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AT & T의 계열사인 (주)데이토텍과 기술

사회 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가는 요즘, 장애인들로 구성된 업체가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화제의 업체는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에 소재한 기원전자통신 주식회사이다. 이 회사는 전자부품 업체라기 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자활의 집」에 가깝다.

왜냐하면 생산직 직원 65명 가운데 남여 30명씩 모두 60명을 장애인 들로 채용해 자립의 꿈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생산 라인에는 관리직 직원 15명을 포함, 전체 직원이 80명에 불과한데 중증의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척추등을 앓는 20, 30대 장애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불편한 몸을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가며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부품들을 숙련된 솜씨로 다뤄 무선전화기와 컴퓨터 조립품을 만들어낸다.

이 회사의 한 직원은 「동종업체의 불량률이 10%인데 반해 우리는 0.3%에 불과하고 생산성도 남들에 뒤지지 않는다」며 납품처인

제휴를 맺어 컴퓨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억원하던 매출액이 올해에는 무려 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원들은 회사 기숙사나 주변 마을에 방을 얻어 살면서 걸을수 있는 사람은 휠체어에 탄 동료를 도와주고, 팔이 성한 사람은 팔이 마비된 사람의 물건을 들어 주거나 세탁을 해주는 식으로 상부상조한다.

이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쌍의 「사내 장애인 부부」가 탄생해 고락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5명의 장애인들이 4~5명씩 힘을 합쳐 서울과 안양, 그리고 부천에 공장을 차려 독립해 나갔다.

이 회사는 88년 10월 서울의 장애인 공장이었던 신일전자의 장애인 20명과 시설을 인수하고 전국의 장애인 협회에 부탁해 장애인들을 불러모아 오늘에 이르렀다.

연말까지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7백평 규모의 최신식 공장을 새로 짓고, 앞으로 회사의 이익금중 일정액을 장애인들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鎭)